

초등

수능 독해

문학 3 |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가이드북



작품 이름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원 모의 평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별별 인물					
01 유자소전 _ 이문구	☐	☐			☐
02 장마 _ 윤홍길		☐	☐		☐
03 자전거 도둑 _ 박완서	☐	☐			☐
04 가난한 사랑 노래 _ 신경림	☐	☐	☐		
05 괜찮아 _ 장영희	☐				
별별 사건					
01 소음 공해 _ 오정희	☐				
02 일용할 양식 _ 양귀자	☐				☐
03 노새 두 마리 _ 최일남	☐				☐
04 낙화 _ 이형기	☐	☐	☐		☐
05 구두 _ 계용목	☐	☐			☐
별별 배경					
01 수난시대 _ 하근찬	☐	☐			☐
02 광장 _ 최인훈		☐	☐	☐	
03 꺼삐딴 리 _ 전광용		☐		☐	☐
04 성북동 비둘기 _ 김광섭	☐	☐			☐
05 추억에서 _ 박재삼		☐	☐	☐	☐
별별 소재					
01 흐르는 북 _ 최일남		☐	☐	☐	
0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_ 윤홍길		☐	☐		☐
03 성탄제 _ 김종길	☐	☐		☐	☐
04 풀 _ 김수영	☐	☐			☐
05 결혼 _ 이강백		☐		☐	



작품 이름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원 모의 평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별별 인물					
01 사랑손님과 어머니 _ 주요섭	○	○			
02 삼대 _ 염상섭		○	○	○	○
03 쉽게 씌어진 시 _ 윤동주		○			○
04 나룻배와 행인 _ 한용운	○	○	○		
05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_ 오영진		○	○		
별별 사건					
01 미스터 방 _ 채만식	○	○		○	
02 운수 좋은 날 _ 현진건	○	○			○
03 봄·봄 _ 김유정	○	○		○	○
04 유리창 1 _ 정지용	○	○			○
05 고향 _ 백석	○	○	○		○
별별 배경					
01 메밀꽃 필 무렵 _ 이효석	○	○	○		○
02 만세전 _ 염상섭	○	○		○	○
03 태평천하 _ 채만식		○	○		
04 님의 침묵 _ 한용운		○	○		○
05 청포도 _ 이육사	○	○			○
별별 소재					
01 동백꽃 _ 김유정	○	○	○		
02 돌다리 _ 이태준	○	○	○		○
03 역마 _ 김동리		○		○	○
04 진달래꽃 _ 김소월	○	○	○		○
05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_ 김영랑	○	○			



작품 이름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원 모의 평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별별 인물					
01 유충렬전 _ 작자 미상		○	○	○	○
02 심청전 _ 작자 미상	○	○	○	○	○
03 허생전 _ 박지원	○	○			○
04 동명왕 신화 _ 작자 미상	○	○			
05 (가) 동짓달 기나긴 _ 황진이	○	○			○
(나) 뫼버들 가려 _ 홍랑	○	○	○		
별별 사건					
01 사씨남정기 _ 김만중	○	○	○	○	○
02 운영전 _ 작자 미상	○	○	○	○	○
03 흥보가 _ 작자 미상	○	○	○	○	○
04 춘향전 _ 작자 미상	○	○	○	○	○
05 가시리 _ 작자 미상	○	○	○	○	○
별별 배경					
01 박씨전 _ 작자 미상	○	○	○	○	○
02 홍길동전 _ 허균	○	○	○	○	○
03 양반전 _ 박지원	○	○	○		○
04 (가) 하여가 _ 이방원	○	○			
(나) 단심가 _ 정몽주	○	○			
05 봉산 탈춤(제6과장 양반춤) _ 작자 미상	○	○	○		○
별별 소재					
01 토끼전 _ 작자 미상	○	○	○	○	○
02 만복사저포기 _ 김시습		○	○		○
03 오우가 _ 윤선도	○	○	○		○
04 (가) 두꺼비 파리를 _ 작자 미상	○	○		○	○
(나) 개를 여남은이나 _ 작자 미상	○	○			
05 규중 칠우 쟁론기 _ 작자 미상	○	○			○



별 별
큰 큰

인물

01 유충렬전 _ 작자 미상

02 심청전 _ 작자 미상

03 허생전 _ 박지원

04 동명왕 신화 _ 작자 미상

05 (가) 동짓달 기나긴 _ 황진이

(나) 뽕버들 가려 _ 홍랑

별 별 인물 어휘로 마무리

#장면별 핵심 태그

#1

【# 천자】가 정한담
일파에게 항복하려는 순간
유충렬이 나타나 적의
선봉장을 물리침

#2

【# 태자】와 천자가
유충렬에게 나라를 위해
싸워 줄 것을 부탁하며
도원수로 임명함

#3

【# (유)충렬】의
비범함을 알아본 도사
진진이 말리는 데도 유충렬과
싸우다 죽는 마룡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항복 2 천자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천자는 군대를 지휘하는 깃발에 직접 유충렬에게 내린 벼슬을 적어 주고 있다.

사건 천자가 옥새와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를 들고 정한담에게 항복하려는 순간 유충렬이 등장하여 적군을 물리친다.

배경 유충렬은 적장 정문걸, 최일귀, 마룡과 차례대로 싸우고 있다.

소재 적군의 도사 진진의 말에 따르면 유충렬의 투구와 갑옷 등은 용궁에서 만든 것이다.

02 ⑤

이 글에서 마룡은 유충렬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솔하게 싸움에 나섰다가, 유충렬의 손에 죽고 만다.

03 ⑤

도사인 진진은 유충렬의 갑주 창검이 용궁에서 만든 것이고, 유충렬이 하늘의 신이며, 유충렬의 말이 하늘을 나는 용임을 알아보았기에 마룡이 유충렬과 싸우려는 것을 말리고 자신은 도망쳤다.

① 조정만은 명나라 천자를 모시고 있다. ② 태자는 적진에 잡혀 갔다가 돌아왔다. ③ 최일귀는 유충렬과 싸운 뒤 정신을 잃었다. ④ 옥관 도사는 상대방인 유충렬의 전투 모습을 보고 놀라 군사를 후퇴시켰다.

04 ⑤

유충렬이 정문걸을 잡으러 올 때 유충렬의 큰소리에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는 표현은 있으나, 유충렬이 도술을 부려 자연 현상을 일으킨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5 각설

‘각설’ 앞부분은 천자가 정한담에게 항복하려는 순간이고, ‘각설’ 뒷부분은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유충렬이 나타나 천자를 구하는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다.

06 ②

천자는 간신인 정한담의 말을 듣고 충신인 유심을 귀양 보내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항복하려고 하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왕실의 모습을 보여 준다.

07 ②

도사 진진은 유충렬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유충렬이 전쟁에서 이길 것임을 짐작한다. 진진 입장에서는 유충렬이 적이므로 ‘큰 재난’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08 ③

유충렬은 자신의 정체와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을 설명하고 천자가 역적의 꾀에 빠져 자기 아버지를 귀양 보낸 것이 잘못된 일임을 지적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다짐은 태자의 말을 듣고 난 후이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뱃사람들과 떠나는 날
심 봉사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죽는
꿈이라 생각하는 심청

#2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인당수**】에
제물로 팔려 가는 사실을
알게 된 심 봉사

#3

【# **황후**】가 된
심청이를 맹인 잔치에서
만나고 눈을 뜨게 된 심 봉사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인당수

2 맹인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02 ④

03 ②

04 ②

05 공양미 삼백 석

06 ②

07 ③

08 ①

인물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빠져 죽을 것을 알면서도 팔려 간다.

사건 인당수에 팔려 갔던 심청이가 황후가 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배경 황후가 된 심청이는 맹인 잔치를 열었고, 그곳에서 심 봉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소재 뱃사람들은 심청이의 몸값으로 공양미 삼백 석을 주었다.

심청이는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 심 봉사의 진짓상을 차리고 있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은 인물이다. 이러한 심청이가 맹인인 아버지에게 집안일을 맡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청이가 가마를 타고 장 승상 댁에 가리라는 것은 심 봉사가 자신의 꿈을 해석한 내용일 뿐이다.

심 봉사는 심청이가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안 뒤, 심청이에게 호소했다가, 뱃사람들을 원망했다가, 자신이 대신 제물이 되겠다고 한다. 따라서 심청이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한다. 공양미 삼백 석은 심청이의 효심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3의 심 봉사의 말에 따르면, 심 봉사는 집이 없이 이리저리 밥을 부쳐 먹고 다닌다고 하였다.

① 심 봉사는 심청이가 제물로 팔려 가는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한 것이 아니라 팔려 가는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③ 황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이것저것 물어본 후에 아버지임을 알았다. ④ 심 봉사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다고 하였다. ⑤ 뱃사람들은 심 봉사를 가없이 여겨 쌀과 돈, 옷감 등을 챙겨 주었을 뿐이다.

이 글은 마지막 부분에서 헤어졌던 부녀가 다시 만나고 심 봉사가 눈을 뜨는 행복한 결말을 보여 준다. 행복한 결말은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심청이는 황후가 되었으므로 황제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지은이는 왕에게서 쌀과 집을 받았다는 내용만 나와 있다.

매인복 14~19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아내의 질책으로 글읽기를
그만두고 변 씨에게
【# **만냥**】을 빌리는
허생

#2

전국의 과일과
【# **말총**】을 모조리
사들여 큰돈을 번 허생

#3

【# **허생**】이 큰돈을
가지고 오자 허생을
따르기로 하는 도둑들

#4

도둑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가
조그만 【# **시험**】을
끝내는 허생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말총 2 빈 섬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허생은 서울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지 사람들에게 물어서 변 씨를 찾아간 것이다.

사건 허생이 안성에서 과일을 모두 사들이는 바람에 온 나라가 잔 치와 제사를 치르기 어렵게 되었다.

배경 '빈 섬'에서 허생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소재 허생은 섬에서 기른 곡식을 장기도에 가서 팔아 백만 냥을 벌었다. '만 냥'은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이다.

02 ⑤

변 씨의 자식과 손자들은 허생의 누추한 외모에도 선뜻 돈을 빌려 주는 변 씨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변 씨는 허생의 인물됨을 알아채고 이유도 묻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

03 ⑤

허생과 아내의 대화를 통해 장인바치나 장사꾼과 같은 상공업 계층은 양반 계층보다 낮은 신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양반은 무능력했으며 신분 질서도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4 ②

허생의 아내는 밤낮 글만 읽는 허생에게 장인바치 일이나 장사를 못 하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느냐며 화를 내고 있다. 도둑질은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그만큼 허생의 아내가 생활을 꾸려 나가기 힘들었음을 알려 준다.

05 빈 섬

허생은 매점매석하여(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사서 쌓아 두었다가 물건값이 오르면 팔아) 번 큰돈을 가지고 도둑들을 이끌고 '빈 섬'으로 들어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06 ②

허생은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이론과 관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시 집권 양반층을 비판하고 있다.

07 ③

허생은 빈 섬에서 경제적 기반을 닦은 후에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여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시험하였다. 하지만 땅이 좁고 터가 없어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섬을 떠난다.

08 ④

칼, 호미, 포목 등을 가지고 간 곳은 빈 섬이 아니라 제주도이다. 빈 섬은 도둑들을 데리고 들어가 이상 사회 건설을 시험해 본 곳이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유화가 햇빛을 받아 낳은
【# 알】에서 태어난
주몽

#2

주몽의 뛰어난 재주를
질투하는 【# 금와왕】의
일곱 아들

#3

물고기와 【# 자라】
들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는
주몽 일행

#4

졸본주에 【# 고구려】를
세우고 후에 동명 성왕으로
불린 주몽

문제 정답 및 해설

매인북 26~29쪽까지 정답이야!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02 ④

03 ③

04 A: 알
B: 고구려

05 ④

인물 유화는 천제가 아니라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다.

사건 날마다 햇빛이 따라와 유화를 비추었으며 몇 달 뒤 유화는 알을 낳았다.

배경 주몽이 금와왕의 아들들을 피해 부여를 떠나고 있는 것에서 금와왕이 부여의 왕임을 알 수 있다.

소재 물고기와 자라 등은 주몽이 금와왕의 일곱 왕자들을 피해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 글은 설화의 한 종류인 건국 신화로, 고주몽이라는 영웅적 인물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과정이 드러난다.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기에 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덧붙여지거나 수정되기도 한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게 된 것은 금와왕의 일곱 아들이 주몽을 질투하여 주몽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① 주몽은 부여가 아니라 훗날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울 마음을 먹고 있었다. ② 주몽과 사슴 사냥을 나간 것은 금와왕의 일곱 아들들이다. ④ 주몽이라는 이름은 활을 잘 쏘아서 붙인 것이다. ⑤ 주몽에게 왕자들의 음모를 알려 준 사람은 어머니 유화이다.

‘신이한 출생’에 해당하는 내용은 주몽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주몽은 사람이지만 알에서 태어났다. 한편 ‘위대한 업적’은 주몽이 이룩한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동명 성왕이다.

● 보기 ●

「동명왕 신화」는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며, 이러한 구조는 이후에 창작된 「홍길동전」, 「유충렬전」 등의 영웅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야원 말’은 주몽이 마구간에서 가장 좋은 말을 골라 그 혀에 바늘을 찔러 두어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위게 된 것이다. 금와왕은 이 마른 말을 주몽에게 상으로 준다. 따라서 ‘야원 말’은 좋은 말을 얻고자 한 주몽의 지혜로움을 보여 주는 것이지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장면별 핵심 태그

#가

【# 동짓달】의 긴 밤을
잘랐다가 임이 온 밤에
꺼내고 싶음

#나

임에 대한 사랑을
【# 뫼버들】에 담아
임에게 보냄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30~33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가의 화자는 임과 떨어져 있으므로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시어 #가에서 '동짓달 지나간 밤'은 임이 없어 더 길고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표현 #나의 화자는 '뫼버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는 소망을 임에게 전달하고 있다.

02 ③

#다에서 황진이는 종종 때의 기생이고, 홍랑은 선조 때의 기생이라고 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중종은 조선 제11대 왕, 선조는 조선 제14대 왕이다.

03 ①

시조는 4음보이므로 네 개의 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다.
② 춘풍 / 이불 안에 / 서리서리 / 넣었다가, ③ 정든 임 / 오신 날 밤이었던 / 굶이굽이 / 펴리라. ④ 뫼버들 / 가려 꺾어 / 보내 노라 / 임에게 ⑤ 주무시는 / 창밖에 / 심어 두고 / 보소서.

04 ⑤

#가는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을 옷감처럼 잘라 접었다가 나중에 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임이 없는 시간을 줄이고,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보여 준다.

05 ④

#가에서 '동짓달 지나간 밤'은 임이 없는 외로움에 춥고 길게 느껴지는 밤을 의미하고,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다. 이와 대조되는 시간은 '정든 임 오신 날 밤'이다.

06 뫼버들

'뫼버들'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으로, 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정표이다. 화자는 임이 뫼버들을 보며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07 ②

뫼버들을 '나인가도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은 언제나 임을 생각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새잎이 되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08 ③

#가와 #나의 화자는 임과 떨어져 있는 처지로, #가의 화자는 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임이 언제 오겠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휘로 마무리



01

- (1) ㉠
(2) ㉡
(3) ㉢

㉠ ‘굽이굽이’는 ‘여러 굽이로 구부러지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강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듬성듬성’은 ‘매우 드물고 성긴 모양.’을 나타내므로 머리카락이 드물게 나 있는 모양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너털너털’은 ‘여러 가닥이 자꾸 어지럽게 늘어져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허생의 허리띠 술이 풀려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02 ㉠

‘충렬’이라는 이름은 ‘충성스러운 열사(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라는 뜻이다. 제시된 부분은 태자가 유충렬에게 천자와 나라를 위해 싸워 주기를 부탁하는 장면이다. ㉠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 ㉡ ‘효성’은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정성.’을 뜻한다. ㉢ ‘정성’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뜻한다. ㉣ ‘지성’은 ‘지극한 정성.’을 뜻한다. ㉤ ‘감성’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뜻한다.

03

- (1) 장인바치
(2) 눈엣가시

(1)과 (2)는 둘 다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1)에서 ‘장인’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장인바치’는 장인을 만만히 여기고 함부로 낮추어 대하는 말이다. (2)는 ‘눈엣가시’는 [누네까시]나 [누넌까시]로 읽으며 보기 싫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다.

04 ㉤

‘죄다’는 ‘남김없이 모조리.’라는 뜻으로, ‘모두, 몽땅, 모조리, 남김없이’와 뜻이 비슷한 말이다. ㉤ ‘어김없이’는 ‘어기는 일이 없이, 틀림이 없이.’의 뜻이다.

05

- (1) ㉠
(2) ㉡

우리말 어휘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휘의 뜻을 외우려 하기보다는 앞뒤 문맥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06

- (1) 밤비
(2) 새잎

(1) ‘밤’은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이르고, ‘비’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높은 곳에서 찬 공기를 만나 식어서 엉기어 땅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말한다. ‘밤비’에는 이러한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 (2)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을 뜻하고, ‘잎’은 ‘식물의 줄기의 끝이나 돌레에 붙어 있는 영양 기관.’을 말한다. ‘새잎’ 역시 이러한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

07 ㉡

허생은 과일을 모조리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르자 되파는 방법으로 큰돈을 벌었다. 이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매점매석’이다. ㉠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을 가리키는 상황에, ㉡ ‘일거양득’은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얻는 상황에 쓰인다. ‘일거양득’과 비슷한 말로는 ‘일석이조’가 있다.

08 ㉠

심청이는 앞으로 자신 없이 혼자 살아야 할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인당수에 빠져 곧 죽을 운명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장이 썩다’의 뜻으로는 ㉠ ‘마음이 몹시 상하다.’가 적절하다. ㉡ ‘마음이 약하고 솟기가 없다.’는 ‘심장이 약하다’의 뜻이다. ㉢ ‘가슴이 조마조마하거나 흥분되다.’는 ‘심장이 뛰다’의 뜻이다.

별별
큰 큰



사건

01 사씨남정기 _ 김만중

02 운영전 _ 작자 미상

03 흥보가 _ 작자 미상

04 춘향전 _ 작자 미상

05 가시리 _ 작자 미상

별별 사건 어휘로 마무리

#장면별 핵심 태그

#1

【# 배】에서 사 씨와 재회하고 그동안 교 씨가 저지른 악행을 말하는 유 한림

#2

【# 동정호】에서 꿈 내용에 따라 유 한림을 구한 사 씨

#3

【# 동청】의 심복이 되어 악한 짓을 하는 냉진과 몰래 정을 통한 교 씨

#4

냉진의 배신으로 몰락하는 【# 동청】과 도둑을 맞아 알거지가 된 냉진과 교 씨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배 2 마부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02 ⑤

03 ②

04 ⑤

05 ④

06 선인: 묘혜 스님,
사 씨 / 악인: 동청,
교 씨, 냉진

07 ②

08 ③

인물 사 씨는 유 한림의 정실 부인이고 교 씨는 유 한림의 첩이다.

사건 #3에서 동청과 교 씨는 자신들이 유 한림을 죽이기 위해 보낸 자객들에게서 유 한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배경 헤어졌던 사 씨와 유 한림이 다시 만난 곳은 동정호 물가이다.

소재 설매가 사 씨의 옥가락지를 훔쳐 냉진에게 보냈다.

설매는 차마 인아를 물속에 넣을 수 없어서 강가의 숲속 풀밭에 넣어놓았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보다는 서술자의 직접적인 서술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냉진은 동청의 손발이 되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포악한 짓을 저지른 자이다. 또 냉진이 동청을 고발한 것은 아침을 하던 엄승이 잡혔으니 동청도 무사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청과 교 씨는 유 한림이 다시 출세하면 자신들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유 한림을 죽이려 한다. 동청 일당에게 쫓겨 강가로 도망친 유 한림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미리 배를 매어 둔 사 씨를 만나 목숨을 보전하게 된다.

이 글은 교 씨 일당의 모함으로 남쪽으로 도망갔던 사 씨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인 유 한림과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로,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뚜렷한 작품이다.

유 한림은 동청 일당에게 쫓기다 우연히 배에 올라탔고, 여기에서 헤어졌던 사 씨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권선징악’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뜻으로, 대부분의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결말이다.

① ‘유구무언(有口無言)’은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유유상종(類類相從)’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권토중래(捲土重來)’는 한 번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매인북 38~43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김 진사에게 운영과
도망가라고 하면서 운영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 **특**】

#2

김 진사가 지은 시를 읊다가
한 시구에서 멈추고
의심스러워하는
【# **대군**】

#3

운영이 김 진사와 함께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 **자란**】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특 2 자란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운영과 자란은 모두 안평대군을 모시는 궁녀이다.

사건 김 진사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운영이다.

배경 #3에서 자란이 한 말을 보면, 운영의 거처가 남궁이 아니라 '서궁'임을 알 수 있다.

소재 이 글은 양반인 김 진사와 궁녀인 운영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이다.

02 ④

운영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것은 특 혼자만의 계획이었다. #1을 보면 특은 김 진사를 돕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김 진사를 죽이고 자신이 운영과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

03 ⑤

자란은 운영의 얼굴이 쇠하면 운영에 대한 대군의 사랑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지 않겠느냐며 운영을 설득하고 있다.

04 ⑤

내화는 운영과 김 진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하는 부분(1인칭 시점)으로,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 이야기에 유영은 등장하지 않는다.

05 ①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유영의 행적마저 알 수 없다는 결말은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이 더욱더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06 ①

특은 겉으로는 김 진사를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김 진사를 배신하고 운영과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 한다. 따라서 특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인물의 됨됨이나 인물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 한자 성어도 함께 알아 두면 도움이 된다.

07 ④

김 진사는 신분 상승을 위해 궁녀인 운영과 만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사랑했기에 목숨을 걸고 운영을 만난 것이다.

● 보기 ●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 글의 운영은 궁녀라는 신분 때문에 김 진사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었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 **놀보**】에게
구걸하러 갔다가
매만 맛고 쫓겨난 흥보

#2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
【# **박**】을 타는 흥보

#3

흥보가 탄 박에서 불거진
【# **쌀**】이 나오는
괘와 돈이 나오는 괘

#4

엄청난 양의 밥을 지은 흥보
가족과 【# **밥**】을
꾸짖고 달래는 흥보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놀보 2 괘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02 ②

03 ④

04 ②

05 ①

06 ④

07 ④

08 ⑤

인물 놀보는 창고에 곡식과 돈이 가득하며 가축도 많이 기르고 있다.

사건 궁핍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흥보 마누라를 본 흥보는 굶주리는 가족들을 위해 박을 탄다.

배경 흥보 가족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놀보는 닭에게 쌀 부스러기를 먹이로 주는 등 부자로 살고 있다.

소재 흥보네 가족이 탄 박에는 돈과 쌀이 들어 있어 부자가 된다.

판소리 사설에서 사건은 주로 창자의 ‘아니리’ 부분에서 전개되는데, 이때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하기보다는 특정 장면을 반복이나 열거를 통해 길고 자세하게 묘사한다.

흥보가 탄 박의 안이 비어 있는 것은 쌀 괘와 돈 괘가 든 신비한 박이었기 때문이다. 도둑이 박속을 굶어 갔다는 것은 박 안이 빈 것을 보고 흥보가 생각한 것이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몇 날 며칠을 굶고도 채신머리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서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괘에서 나온 쌀과 돈을 보고 좋아하고 있다. ④ 박에서 나온 괘를 보고 흥보는 버리려고 했지만 아내의 권유로 열어보았다. ⑤ 박에서 나온 쌀로 식구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있다.

이 글에서 공간적 배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나오지 않는다. 배경 묘사가 자세할수록 사실성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이를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박’에서 나온 쌀과 돈으로 흥보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착하게 살아온 흥보가 착한 행동의 결과로 받은 보상(ㄴ)이자,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당대 서민들의 바람(ㄷ)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흥보가 밥에게 하소연하는 부분은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화와, ‘감감’, ‘명명’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재미있게 표현된 장면이므로 쓸쓸한 배경 음악은 어울리지 않는다.

흥보가 놀보에게 구걸하고 있지만 이는 놀보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기보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정체를 숨긴 채

【# 시】한 편을 지어
본관 사또를 비판하는 어사또
이몽룡

#2

암행어사로 출두하여

본관 사또인 변 사또를

【# 봉고파직】하는 어사또

#3

낭군 이몽룡이

【# 어사또】가 되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긴장이 풀리는
춘향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시 2 암행어사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어사또는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을 의미한다.

사건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배경 #4에서 춘향이 “남원읍에 가을 들어 낙엽처럼 질 줄 알
았더니”라고 말하였다.

소재 ‘마패’는 암행어사인 이몽룡이 지니고 있다.

02 ④

어사또가 지은 시는 벼슬아치들의 화려한 생활과 백성들의 곤궁
한 생활을 대조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탐관오리의 가혹한 정치에
서 비롯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03 ②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고’라고
표현함으로써 마패를 달과 해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탐관오리로
부터 백성이 구원되고, 옥에 갇힌 춘향이 구출될 것이라는 긍정
적인 결말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04 ②

어사또가 지은 시에 담긴 의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사령을 불러
주변을 단속하는 것으로 보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5 ②

‘암행어사 출두’는 고조되어 가던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사건 전개 방향을 탐관오리의 징계로 전환하는 극
적인 반전의 역할을 한다.

06 ③

제시된 장면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지배 계층이 어사출두에 놀
라 허둥대며 달아나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표현하였다. 상식에 어
긋나는 엉뚱한 물건을 들고 허둥대는 모습을 희화화하고 단어의
위치를 바꾸는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인물의 다급한 심리를 표현
하고 있다.

07 ㉠ 춘향

㉡ 이몽룡(어사또)

춘향이의 말은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낙엽’은 변
사또로 인해 위기를 겪은 춘향이를, ‘가을’은 춘향이를 괴롭힌 변
사또의 횡포를, 가을을 몰아낸 ‘봄’은 암행어사 출두를, 낙엽을 살
린 ‘오얏꽃’은 이몽룡을 의미한다.

08 ⑤

춘향이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하는 어사또를 꾸짖는 것은 이몽
룡에 대한 춘향이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굳은 절개를 보여 주는 행
동이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2

【# 님(임)】을 붙잡는
것을 체념하고 임이
돌아오기를 바램

문제 정답 및 해설

매인북 62~65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화자는 현재 임과 헤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시어 '가시리'는 '가시리잇고'의 준말로 '가시렵니까'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표현 '가시리 가시리잇고 / 버리고 가시리잇고'에서 반복을 통해 이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02 ②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화자가 '버리고 가시리잇고',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임이 화자를 두고 떠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03 ④

이 시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떠나는 임을 원망하지만, 곧 체념하고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인 후 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04 ③

제시된 부분은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한 부분으로, 흥을 돋우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흥을 돋우기 위한 부분은 '위 증즐가 대평성대'이다.

05 ④

3연의 '선하면 아니 올세라'는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붙잡지 못하고 있다.

06 ②

'나는'은 의미 없는 여음구로 리듬감을 부여하고 흥을 돋운다.

07 설온 님
(서러운 임)

이 시가에서 '설온 님'은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로 해석할 경우 시적 상황은 임도 화자와 마찬가지로 이별을 슬퍼하나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이한 상황이 되며, 후자로 해석할 경우 시적 상황은 임이 화자를 떠나버린 상황이 된다.

08 ③

'대평성대'는 태평성대(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어 걱정 없고 편안한 상태)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가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1 ④

‘구완하다’는 ‘아픈 사람이나 해산한 사람을 간호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완하여’는 ‘간호하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① 보완하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 ② 보조하다: 보태어 돕다.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돕다. ③ 구분하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 ⑤ 추천하다: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하다.

02 ①

제시된 문장의 ‘손발’은 ‘자기의 손이나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②~⑤는 모두 이런 의미이나, ①의 ‘손발’은 ‘손과 발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쓰였다.

03 ③

빈칸에는 무언가가 가득 쌓여 있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다물다물’이 ‘물건이 무더기무더기 쌓인 모양.’을 나타낸 말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다.

① ‘주렁주렁’은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을, ② ‘북적북적’은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매우 수선스럽게 잇따라 들끓는 모양.’을, ④ ‘뒤죽박죽’은 ‘여럿이 마구 뒤섞여 엉망이 된 모양.’을, ⑤ ‘몽게몽게’는 ‘연기나 구름 따위가 크게 둥근 모양을 이루면서 잇따라 나오는 모양.’을 뜻한다.

04

(1) 웬일
(2) 죄다

‘웬일’은 ‘어찌 된 일.’이라는 의미로 의외의 뜻을 나타낸다. ‘왜’와 관련이 없는 말은 ‘웬’으로 써야 한다. ‘왜인지’의 준말인 ‘웬지’만 바른 표현이다.

(2) ‘죄다’는 ‘남김없이 모조리.’라는 뜻이다. ‘꽤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05 ②

‘섬’, ‘사발’, ‘마리’, ‘필’은 모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더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며,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를 의미한다.

① ‘섬’은 곡식, 가루, 액체 등의 부피를 잴 때 쓰는 단위이고, ③ ‘사발’은 국이나 밥을 그릇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이다. ④ ‘마리’는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등을 세는 단위, ⑤ ‘필’은 말이나 소를 세는 단위이다.

06

(1) 후환
(2) 염치
(3) 계교
(4) 절개

(1) 두렵다는 말이 이어지므로 걱정이나 근심 등을 의미하는 어휘가 적절하다.

(2) 술과 안주를 먹고 그냥 가기가 어떠하다는 내용이므로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어휘가 적절하다.

(3) 특의 사람됨에 피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피, 방법 등을 의미하는 어휘가 적절하다.

(4) 준향이는 수청을 들라는 사포의 명을 거절하는데, 이는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07 ㉠

어사포가 출두하자 각 수령들이 제정신을 잃고 도망가는 상황이므로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인 ‘혼비백산’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08 ㉡

특은 겉으로는 김 진사를 위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운영과 운영의 재물을 모두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어울린다.

㉠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고, ㉡은 ‘되지못한 것이 엇나가는 것만 한다는 말.’이다.



별별
큰 큰

배경

- 01 박씨전 _ 작자 미상
- 02 홍길동전 _ 허균
- 03 양반전 _ 박지원
- 04 (가) 하여가 _ 이방원
(나) 단심가 _ 정몽주
- 05 봉산 탈출(제6과장 양반출) _ 작자 미상

별별 배경 어휘로 마무리

#장면별 핵심 태그

#1

【# **계화**】에게
복수하려고 화살을 쏘지만
하나도 맞히지 못하는 용골대

#2

【# **피화당**】을
공격하였다가 박 씨의 도술로
오히려 피해만 입고 퇴군하는
용골대

#3

계화의 도술에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박 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 **용골대**】

#4

용골대가 아우의
【# **머리**】를 달라고
애걸하지만 이를 거절하는
박 씨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화살 2 피화당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02 계화

03 ③

04 ④

05 ②

06 ②

07 ④

08 ⑤

인물 용골대는 계화에게 죽임을 당한 동생 용울대의 복수를 위해 피화당에 쳐들어왔다.

사건 용골대는 조선 임금의 항복을 받았으므로 이제 박 씨도 우리나라의 백성이라며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배경 이 글은 오랑캐가 조선을 침략하여 일어난 전쟁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다.

소재 박 씨는 계화를 시켜 부적을 던지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채들을 불 속에 던져서 불길에 오랑캐를 향하도록 도술을 부렸다.

시녀인 계화가 박 씨를 대신하여 용울대, 용골대 형제와 싸우기도 하고 오랑캐 군대에게 도술을 부리기도 한다. 이는 그만큼 박 씨의 도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 주기도 한다.

용골대와 계화의 대화로 보아, 용골대가 아우인 용울대가 죽자 이에 분노하여 복수를 하기 위해 피화당에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용골대는 박 씨의 명령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않을 테니 아우인 용울대의 머리를 달라고 하지만, 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골대가 동생 용울대의 복수를 위해 피화당에 쳐들어오지만, 박 씨의 시녀인 계화에게 혼쭐이 나고, 결국 박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

오랑캐 장수 용골대가 박 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이는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기이하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박 씨와 계화 같은 여성들이 오랑캐 군대를 도술로 무찌르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소설에서 허구로 창작된 내용이다.

① 이 소설에서 오랑캐는 청을 가리킨다. ② 이 소설에서도 현실과 같이 조선이 청에 항복한다. ③ ‘김자점’, ‘용골대’와 같이 실존했던 인물이 이 소설에 등장한다. ⑤ 소설에서처럼 실제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에 인질로 잡혀갔다.

실제로 조선은 병자호란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했지만, 이 소설에서는 박 씨의 신이한 능력으로 오랑캐 군대를 혼내 줌으로써 정신적으로나마 보상받으려고 한 것이다.

매인북 70~75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 어머니】에게 집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홍길동

#2

초란의 흥계로 찾아와 홍길동이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 관상녀】

#3

부인과 인형의 허락을 받고 자객 특재에게 홍길동을 죽이라고 하는

【# 초란】

#4

【# 특재】가 침입할 것을 점을 쳐서 알고 둔갑법을 써서 몸을 피하는 홍길동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초란 2 특재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02 ⑤

03 ④

04 길동(홍길동)

05 ④

06 ④

07 ②

08 ④

인물 홍길동은 양반인 홍 판서와, 여종인 춘심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이다.

사건 자객을 시켜 홍길동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초란이다.

배경 홍길동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첩의 자식으로 신분이 천했기 때문에 신분제에 의해 차별을 받아 출세할 수 없었다.

소재 홍길동은 까마귀가 세 번 울고 가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둔갑술로 몸을 숨긴다.

#1 에서 홍길동이 집을 떠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홍길동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서자(첩의 아들)의 신분이라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었다. 홍길동은 천한 신분으로 이름을 후세에 전한 장길산을 본받으려 한다고 하였다.

초란이 무녀를 부른 것은 길동을 없애기 위한 흥계, 즉 홍길동을 없앨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이다.

홍길동은 점을 쳐서 자객인 특재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방 안이 산속으로 바뀐 것에 당황한 특재 앞에 나타나 왜 자신을 죽이러 하나며 특재를 꾸짖는다.

홍길동은 집을 나가려고 하지만 아버지(상공)가 정자에만 머물게 하며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기에 나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엄명을 어기지 못해 갈등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평범한 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홍길동은 총명하고 재주도 뛰어났지만 첩의 아들인 서자였기에 천대를 받고 출세길도 막혔다. 이는 신분에 따라 벼슬을 하지 못하거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데에 제한을 두었던 당시의 신분 차별 때문이다.

길동이 왕이 될 모습이라는 말은 길동이 지금의 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배반한다는, 즉 역모를 일으킨다는 말이다. 조선 시대에 역모죄는 집안을 멸망시킬 정도로 큰 죄였으므로 상공이 근심하여 길동을 감시하였다.

홍 판서는 홍길동을 죽이자는 초란의 제안을 물리쳤으나, 초란은 홍 판서가 병이 든 틈을 타 홍 판서의 부인과 그 아들인 인형에게 홍길동을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낸다.

매인복 76~81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부자가 양반에게 신분을
사자 이 사실을
【# **증서**】로 만들어
주려는 군수

#2

【# **양반**】이 지켜야
할 일이 적힌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 군수

#3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
적힌 양반의 특권을 듣고
양반 되기를 포기하는
【# **부자**】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양반 2 도둑놈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 양반은 어질고 글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사건 부자는 나라에서 끈 곡식을 갚지 못하는 양반의 소식을 듣고 양반에게 직접 양반 신분을 산 것이다.

배경 부자가 양반이 빌린 곡식을 대신 갚아 주고 양반을 산 것에서 당시에 신분 매매가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재 군수는 마을 사람들과 관리들을 뜰에 불러 모은 후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하였다.

02 ⑤

양반이 나라에서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하자 관찰사가 양반을 잡아가두라고 한다. 이처럼 양반이 빚을 갚지 못하면 관아에 잡혀갈 수는 있지만 신분 자체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03 양반의 아내

#1 에서 양반의 아내는 양반이 평생 글을 읽어도 곡식을 갚는 데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며 양반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비판한다. 이는 양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양반의 아내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04 ④

당시에 양반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았지만, 부자는 돈이 많아도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천대를 받았다. 부자는 이런 수모를 받았기에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으로서의 권리를 누리하고자 하였다.

05 ②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을 나열하여 양반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나열하여 양반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06 ⑤

부자는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들으며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요?”라고 말한다. ‘도둑놈’은 양반의 특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집약된 표현이다.

07 ③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은 비천한 일은 하지 않으며,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으며 굶주림과 추위도 참는 등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과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것이다.

08 ④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는 양반의 수탈과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뜰에다 곡식을 쌓아 학을 기른다는 것은 굶주리는 백성은 멀리하고 자신의 즐거움만 찾는다는 것으로, 양반이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면별 핵심 태그

#가

만수산의 [# 드령첩]
같이 우리도 함께 얹혀
한평생을 누리자고 함

#나

[#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임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음

문제 정답 및 해설

매인북 88~91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배경 ×

화자 #가의 화자는 이방원이고, #나의 화자는 정몽주이다

시어 #나는 고려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표현한 시조로, ‘임’은 고려 왕조를 뜻한다.

표현 #나는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배경 #가와 #나 모두 고려 말기에 쓰인 시조이다.

02 (1) 우리도
(2) 임 향한

음절은 말소리의 단위로 1음절이 한 글자라고 보면 된다. 종장은 시조의 마지막 줄이므로 마지막 줄 처음의 세 글자를 쓰면 된다.

03 ④

#가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고 회유하는 내용이고, #나는 고려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의 회유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04 ①

#가의 화자가 ‘만수산 드령첩’처럼 얹어지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만수산 드령첩’은 고려의 낡은 세력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세울 새로운 세력을 의미한다.

05 ②

#가는 ‘드령첩’이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드령첩이 얹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자고 하며 상대방을 우회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나는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다.

06 ③

㉠ ‘임’은 정몽주가 마음을 변치 않겠다고 결심한 대상으로, #다를 보면 정몽주가 섬기던 고려의 왕은 공양왕임을 알 수 있다.

07 ④

#가는 상대를 잘 달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울린다. #나는 이런 회유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읽는 것이 좋다.

08 ③

#가의 화자는 이방원이고, #나의 화자는 정몽주이다. 이들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방원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왕조 건설에 협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 **말뚝이**】와
양반 삼 형제의 등장

#2

양반의 등장을 알리며 담배와
【# **흰화**】를 금하라고
말하는 말뚝이

#3

영터리로 【# **파자**】
놀이를 하여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생원과 서방

#4

생원에게서
【# **전령**】을 받아
취발이를 잡아들이는 말뚝이

문제 정답 및 해설

매인북 92~95쪽까지 정답이야!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말뚝이는 마부로, 양반 삼 형제의 하인이다.

사건 말뚝이는 생원의 전령을 보여 주고 취발이를 잡아 온다.

배경 ‘봉산’은 황해도 봉산 지방을 말하는 것으로, ‘봉산 탈춤’은 이곳에서 행해진 탈춤을 가리킨다.

소재 ‘파자’는 한자를 구성하는 점과 획을 풀어서 맞히는 놀이인데, 생원과 서방은 한자가 아닌 한글 수수께끼를 하며 자랑스러워한다. 이를 통해 양반의 무식함을 강조하고 있다.

02 ㉔ 양반

㉕ 말뚝이

이 글은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이라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재담(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말)이 반복되고 있다.

03 ①

말뚝이가 양반의 명령이 적힌 종이(전령) 하나로 힘이 세고 날랜 취발이를 잡아 오는 것에서 양반의 위세나 권위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취발이처럼 신분은 낮지만 많은 재산을 가진 상인 계층이 등장하고 양반들은 조롱당하는 것에서 엄격했던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⑤ 부정부패로 큰 재산을 모으는 일과, 범죄자를 뇌물을 받고 놓아 주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②

이 글은 재담이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것이 자유롭다. 따라서 재담과 재담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① **#1**에서 병거지, 채찍, 창옷, 관 등의 차림새로 말뚝이와 양반들의 신분을 알 수 있다. ③, ⑤ 말뚝이가 관객들에게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고 직접 말을 건네는 것으로 보아 무대와 객석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말뚝이는 ‘양반’이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를 쓴다고 말하며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5 ⑤

각 재담은 ‘쉬이’(㉠)라는 말로 시작해 ‘춤’(㉡)으로 마무리된다. 이때 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어휘로 마무리



01

- (1) ~~㉠~~
(2) ~~㉡~~
(3) ~~㉢~~

㉠ ‘우왕좌왕’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종잡지 못함.’을, ㉡ ‘탄복’은 ‘매우 감탄하여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 ‘탄식’은 ‘한탄하여 한숨을 쉬. 또는 그 한숨.’을 뜻한다.

02 ㉡

‘흉계’는 말 그대로 ‘흉악한 계략.’을 뜻한다.
㉠ ‘계획을 세움. 또는 그 계획.’은 ‘설계’의 뜻이다. ㉢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은 ‘핑계’의 뜻이다.

03 ㉢

‘거역하다’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다.’라는 의미이다. ㉠ ‘어기다’도 ‘규칙, 명령, 약속, 시간 따위를 지키지 않고 거스르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듣지’와 ㉡ ‘따르지’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받아들여 그렇게 한다는 의미로, ‘거역하지’와는 반대되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 (1) 낮
(2) 점잔

(1) ‘낮’은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 몸이 죽어도 영원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가리킨다.
(2) ‘점잔’은 ‘점잖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점잖다’는 ‘언행이나 태도가 의젓하고 신중하다.’ 또 ‘품격이 꽤 높고 고상하다.’를 뜻하는 말로 ‘점잖게’, ‘점잖은’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05 ㉡

고전 소설에 나오는 ‘주문’은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사람이나 점술에 정통한 사람이 술법을 부리거나 귀신을 쫓을 때 외는 글귀.’를 말한다. 주로 고전 소설 속 인물이 도술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주문’을 외운다.

06

- (1) 푼
(2) 섬
(3) 자

(1) ‘푼’은 돈을 세는 단위로 스스로 적은 액수라고 여길 때 쓴다. 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로 돈 한 닢을 이르기기도 한다.
(2) ‘섬’은 부피의 단위로, 곡식, 가루, 액체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3) ‘자’는 길이의 단위로, 한 자는 한 치의 열 배로 약 30.3 cm에 해당한다.

07 ㉢

‘일편단심(一片丹心)’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 ㉡은 이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편단심을 뜻한다.
㉢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함.’은 한자 성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뜻풀이이다.

08 ㉢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은 어디에서 떠나고 어디로 가는지 건잡을 수 없을 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므로, 흥길동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비유하기에 적절하다.
㉠ ‘뛰어야 벼룩’은 도망쳐도 크게 벗어날 수 없음을, ㉡ ‘다 된 죽에 코 풀기’는 거의 다 된 일을 망쳐 버리는 행동을 나타낸다.

별별
큰 큰



소재

01 토끼전 _ 작자 미상

02 만복사저포기 _ 김시습

03 오우가 _ 윤선도

04 (가) 두꺼비 파리를 _ 작자 미상
(나) 개를 여남은이나 _ 작자 미상

05 규중 칠우 쟁론기 _ 작자 미상

별별 소재 어휘로 마무리

#장면별 핵심 태그

#1

【# 토끼】의 간을 꺼내
오라고 명령하는 용왕

#2

피를 내어
【#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용왕에게
거짓말하는 토끼

#3

토끼의 피에 속아 토끼를
【# 토 선생】이라고
부르며 위로하는 용왕

#4

【# 육지】로 돌아와
별주부를 비웃고 사라진
토끼와 자결하는 별주부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간 2 별주부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토끼는 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를 내어 용왕을 속인다.

사건 별주부는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리고 온 인물이다.

배경 별주부가 토끼를 육지에서 용궁으로 데리고 왔다가 다시 육지로 데려다준다.

소재 높은 산, 깊은 바위틈은 토끼가 간을 숨겨 두었다고 거짓말한 곳이다.

02 ②

이 글에 비속어나 사투리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등장인물들은 문어투의 고상한 말씨를 쓰고 있고, 토끼는 고사성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03 ⑤

#2에서 토끼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겠다는 별주부의 꼬임에 넘어가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용궁에 왔음을 알 수 있다.

04 (토끼의) 간

‘토끼의 간’은 용왕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 글은 토끼에게서 간을 빼앗으려는 용왕과 용왕에게 자신의 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토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05 ③

용왕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죽여 간을 얻으려 하고 있고, 토끼는 살기 위하여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06 ⑤

토끼는 죽음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살아날 방법과 피를 생각해 냈다. 이러한 토끼의 모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자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07 ③

바닷속 용궁에 잡혀 있는 신세인 토끼는 육지 동물로, 용궁에 올 때에도 별주부에게 업혀 왔으므로 혼자서는 도망갈 방법이 없다. ‘각주구검’은 ‘용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로 토끼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① 사면초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② 고립무원: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④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⑤ 진퇴유곡: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08 ⑤

용왕은 권력과 지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토끼가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다. 한편 별주부는 토끼가 도망가자 자신의 충성심이 부족했다고 자책하며 자결하므로 우직하고 충성심이 강한 성격이다.

메인북 100~105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부처님과 [# **저포**]
놀이를 해서 이기는 양생

#2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인연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 **여인**]

#3

행랑 끝 [# **판자방**]에서
인연을 맺는 양생과 여인

#4

여인이 준 [# **은주발**]을
가지고 여인의 부모를 만나는
양생

문제 정답 및 해설

작품 줄거리

1 저포 2 은주발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02 ①

03 ③

04 ③

05 ③

06 ④

07 ⑤

08 ④

인물 양생은 산 사람이고, 여인이 죽은 사람이다.

사건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 놀이에서 이기고 부처님께 배필을 만나게 해 달라고 빈다.

배경 보련사는 양생과 여인이 다시 만나는 공간이다. 여인은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무덤)'에 머문다고 하였다.

소재 '은주발'은 여인의 무덤에 묻힌 것으로, 여인의 부모가 양생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여인이 양생에게 준 것이다.

양생은 불상 앞에 저포를 던지며 자신이 지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테니, 자신이 이기면 자신에게 아름다운 배필을 구해 달라고 한다.

여인은 자신의 기구한 생애를 정리한 글을 부처에게 바치는데, 그 내용은 부처가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다면 인연을 빨리 만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양생이 만난 여인의 부모가 귀족 집안이므로 여인이 귀족 집안의 딸임을 알 수 있으며, 여인의 부모가 대상을 치르러 간다고 한 점에서 여인이 죽은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양생은 여인에게서 은주발 하나를 받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여인의 부모를 만났다.

'판자방'은 양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고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이고, '하얀 휘장 안'은 재회한 양생과 여인이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여인의 부모에게 여인과 양생의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다.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 놀이'에서 이겨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저포 놀이는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필연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또 여인이 준 '은주발'은 여인의 부모가 양생의 말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여인과의 술자리에서 양생은 여인이 가져온 술을 보며 여인을 의심하고 괴이하게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여인의 몸가짐과 옷차림을 보고 귀한 집 처녀라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메인북 106~111쪽까지 정답이야!



#장면별 핵심 태그

#1

다섯【# **벗**】에
대한 소개

#2

깨끗하고 그치지 않으며
흐르는【# **물**】

#3

변하지 않는【# **바위**】

#4

뿌리가 곧아 눈서리를 모르는
【# **소나무**】

#5

곧고 속이 비었으며 항상 푸른
【# **대나무**】

#6

세상을 밝게 비추고, 보고도
말 없는【# **달**】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112~115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화자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이라고 칭하며 그들의 특성을 예찬하고 있다.

시어 ‘잎’은 추우면 쉽게 지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

표현 곧고 속이 빈 대나무의 외형을 질문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02 ①

화자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의인법, 문답법, 설의법 등을 활용하여 예찬하고 있다. 이 시가는 화자가 ‘벗’으로 생각하는 자연물을 나열하듯 전개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지는 않는다.

03 ②

〈제2수〉에서 바람은 소리가 맑지만 그칠 적이 많다고 하였다. ‘바람’은 깨끗하고도 변하지 않는 ‘물’과 대조되는 소재로 가변성을 상징한다.

04 ②

화자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자신의 벗으로 소개하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5 ⑤

‘바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지닌 대상이고, 이와 반대로 ‘꽃’과 ‘풀’은 쉽게 지고 색이 변하므로 순간적 속성을 지닌 대상이다. 화자는 ‘꽃, 풀’과 대조하여 바위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06 ③

㉠, ㉡, ㉢, ㉣은 모두 달을 가리킨다. ㉤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달이 비추는 것을 말한다.

07 ②

〈제6수〉에서는 ‘달’의 포용성과 과묵함을 예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친구의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주는 포용성을 지닌 ‘민기’이다.

08 ②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비유하는 자연물은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다. 화자는 다섯 자연물의 속성을 제시하며 예찬하고 있다.

09 ④

이 시가는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예찬함으로써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도리와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장면별 핵심 태그

#가

파리를 물고 가다가
【# 백송골】을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진 두꺼비

#나

미운 임 오면 반기고
고운 임 오면 짓는 알미운
【# 개】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116~119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가의 화자는 두꺼비를 비판하는 사람이다. #나의 화자는 임을 기다리는 여인이다.

시어 여인은 개를 열 마리 넘게 기르고 있다.

표현 #가의 종장은 두꺼비가 직접 하는 말이다.

02 ⑤

#가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나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내용이다. 이처럼 설명 내용은 맞지만, 설명 대상이나 기호를 바꾸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03 개

#나에서는 화자가 임을 원망하는 마음을 '개'라는 매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미워하는 임이 오면 꼬리를 치며 반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임이 오면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면 화자는 애꿎은 개를 알미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04 ③

두꺼비는 강자인 백송골에게는 꿈쩍 못하면서 약자인 파리를 괴롭히는 동물이다. 이로 보아 '두꺼비'는 지방의 관리를,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백송골'은 중앙의 고위 관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5 ④

'강강'은 개가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의성어)이고, 나머지는 개의 행동을 흉내 내는 말(의태어)이다. '그릇그릇'은 신발이 여러 그릇에 담겨 있을 정도로 양이 많음을 표현한 말로, 개의 행동을 묘사한 말은 아니다.

06 ⑤

'허장성세(虛張聲勢)'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두꺼비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 자빠졌으면서도 자기가 날래서 다치지지는 않았으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① '자화자찬'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는 말이다. ② '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말이다. ③ '자승자박'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견물생심'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다.

07 ④

#나의 임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대상으로, 비판이나 풍자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다. 또한 동물을 의인화한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장면별 핵심 태그

#1

【# 척 부인】, 교두 각시,
세요 각시, 청홍흑백 각시,
감투 할머니, 인화 부인,
울 남자의 자기 자랑

#2

【# 규중 부인】에 대한
불평으로 규중 부인에게
꾸중을 들은 칠우와 용서를
비는 감투 할머니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120~123쪽까지 정답이야!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한 규중 칠우가 각자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건 규중 칠우는 서로의 공이 가장 크다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동시에 남의 공을 낮추고 있다.

배경 이 글은 규중 부인의 방에서 일어난 일을 쓴 수필이다.

소재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 등의 바느질 도구가 이 글의 주요 소재이며 이 도구들이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02 ②

세요 각시는 옷감을 뜨고 박아 바느질하는 바늘이다. 교두 각시는 가위, 울 남자는 다리미이다.

03 ⑤

‘인화 부인’은 바느질에 재주가 없는 자가 바느질을 잘못된 흔적을 감추어 준다고 했을 뿐, 바느질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 바느질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지는 않았다.

04 ⑤

규중 부인의 질책에 감투 할머니가 사죄하고 이를 부인이 받아들이면서 그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만,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05 ⑤

“너와 나는 말은 일이 같고 더 많은 옷에 참여한다.”라고 말한 것은 울 남자이다.

06 ②

이 글에는 의인화된 사물들이 옷을 짓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공만 내세우고, 다른 벗을 비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어휘로 마무리



01

- (1) 화해
- (2) 강강

(1)에는 꼬리를 치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가볍게 자꾸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이라는 뜻의 '화해'가 적절하다. '줄줄'은 '작은 동물이나 사람이 자꾸 뒤를 따라다니는 모양.'을, '쿵쿵'은 '크고 무거운 물건이 잇따라 바닥이나 물체 위에 떨어지거나 부딪쳐 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2)에는 개가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작은 개가 짖는 소리.'라는 뜻의 '강강'이 적절하다. '탁탁'은 '사람이나 물건이 잇따라 쓰러지는 모양.'을, '살살'은 '심하지 않게 가만가만 가볍게 만지거나 문지르는 모양.'을 나타낸다.

02 ㉔

'이따금'은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이라는 뜻이다. '때로는'은 '잡지 아니하게 이따금.'이라는 뜻으로 '이따금'과 뜻이 비슷하다. ① '자주'는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 ③ '흔히'는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게.', ④ '항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⑤ '빈번히'는 '번거로울 정도로 거듭하는 횟수가 잦게.'라는 뜻이다.

03 ㉠

용왕은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려는 토끼를 꾸짖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간사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4

- (1) 배필
- (2) 수석

(1)의 '배필'은 '부부', '양인', '배우자'와 비슷한 말로 쓰인다. (2)의 '수석'은 「오우가」에서는 '물과 돌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쓰였지만,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 물속에 있는 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05

- (1) 바친
- (2) 다릴
- (3) 채

(1)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라는 뜻이고,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에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뜻이다.

(2) '달이다'는 '약재 등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라는 뜻이고, '다리다'는 '옷이나 천의 구김을 펴려고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라는 뜻이다.

(3)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체'는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이라는 뜻이다.

06 ㉔

'길다'와 '짧다'는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크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등이 보통 정도를 넘다.'의 의미이므로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는 '작다'이다. '많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의 의미이므로 '많다'와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는 '적다'이다.

07 ㉡

양생과 여인이 부부의 연을 맺는 장면으로 보아, ㉡의 뜻이 가장 적절하다. '백년해로(百年偕老)'는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이라는 뜻이다.

㉠은 '지피지기(知彼知己)', ㉢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뜻이다.

08 ㉢

밑줄 친 속담과 같이 ㉢은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말.'이다.

㉠은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은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